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E-mail: hc1260@hanmail.net
TEL: 033)256-1260~1
FAX: 033)257-1260

발 행 인 : 장효근

춘천성시신문

성 시 비 전
교회갱신·부흥·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1998년 9월 15일 창간 | The Chuncheon Holycity Times | 제 128호 2009년 7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뜨겁게 성장하는 7월!

하나님만을 향해 있는 주바라기로 사는
7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새서 1:28)

INDEX

2 기독교교육의 창의적 의미
4 거룩한도시춘천을위하여부르짖으리니
8 평신도 시역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삶
11 신천지 교리 무엇이 문제인가?



9 | 똑똑한 등신이 내몸을 살린다(V)



13 | 신교에 관한 3제



기독교교육의 창의적 의미

글/ 박세광 목사 (화천소망교회 담임 · 기독교교육전공 · 감리교동부신학원 강사)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사전적 정의 외에도 각자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 다양한 응답들이 나올 것이라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에게 기독교교육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역시 여러 대답들이 나올 것이리라. 이에, 글을 시작하기 앞서, 기독교교육이란, 함께 공감하기 쉬운 말로 풀이하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하여보자.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나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의 목적이 될 것이다.

기독교교육은 철저히 실천적인 신학의 한 분야요 교회를 위한 학문이다. 다시 말하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 믿음을 바탕삼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울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곧 기독교교육의 본질이라 할 수 있겠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도록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이다. 희랍어 원어적인 의미에는 '부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교회다. 우리가 부름 받은 이유는 다시 보냄을 받기 위함이다. 세상의 창조주요 역사의 절대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해 '집합'! 명령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몸소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 승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성취되는 곳이며 죽음마저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가 있는 곳,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할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답게 되도록 돕는 것이 바로 기독교교육이 관심 갖는 부분이다.

부름 받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져야 한다. '집합' 명령을 받았으면, 그 다음엔 징예요원으로 훈련받고 교육받는다. 이것이 목회사역이다. 각 교회마다 목회자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 다시금 세상 속으로 파송하기에 충분하도록 '훈련'하기 위함이다. 교회마다 평신도 직분자들이 있는 것은 담임목회자를 도와 이처럼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인 평안함을 얻고, 상처받은 것을 치유함 받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복이다. 점점 더 메말라가는 세상에서 지친 자들이, 주 안에서 참 평안을 얻고 참 안식을 얻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부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구미'에 맞게 세우는 단계에 불과하다.

부름 받은자들의 사명



부름 받은 자들은 다시금 보냄 받는다. 훈련을 마친 군인들은 정예 군인이 되어 작전수행 능력을 갖추게 되듯,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올바로 세움 받은 자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보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파송 받는다. 세상은 어디인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기 이전부터 오래도록 세상을 사랑해오셨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실 정도로 아끼고 사랑하는 곳이다. 이제 우리는 이곳으로 파송 받는다. 본래 우리가 부름 받은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냄 받는 곳,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해야할 사명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한다는 것은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삶의 자리가 다양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군인들은 작전을 받고 보냄 받기 전, 미리 보냄 받을 곳을 수색한다. 보냄 받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고는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철저히 파악하고, 이곳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시키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mission)이다.

믿음 안에서 그 믿음에 의해 우리의 삶이 변화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부름 받았음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움 받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긍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향한다. 그렇기에, 기독교교육은 우리 믿음 생활의 총체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교육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양식들, 즉 예배, 기도, 말씀읽기 등에 깊이 관심 갖는다. 그러한 양식들을 통해, 부름 받은 자가 그 목적에 부합하게,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듭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독교교육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깊이 관심 갖는다. 그곳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일을 맡기신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구체적인 현실로 돌아와 본다. 우리의 청소년 아이들이 신음하고 있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정에 대해 불만을 갖는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그저 지나가는 성장통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안타깝다. 이론과 실제의 괴리일까?

마지막으로 교회에 제언하고 싶다. 기독교교육의 교회교육에 있어서, 교육방향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데에만 편중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름성경학교와 여름수련회를 기획할 때가 되었는데, 그동안 우리는 지나치게 회심중심의 교육목적에만 몰두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본다. 물론 더 없이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지만, 상호소통의 구조 없는 일방적인 회심체험 강요는 아이들에게 역효과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삶의 자리와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고 싶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일도 많고,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많으며, 깨우쳐주고 싶은 것도 많지만, 잠시만 인내함으로 일보 후퇴하여, 그저 그냥 아이들의 삶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소중한 일일 것이라 생각된다.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아이들의 삶을 변화하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다만 증언자일 뿐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일 뿐이다.



장학일 목사 초청
2009년 춘천 복음화와 경찰 가족을 위한
연합부흥성회
주제 :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
2009. 7. 12(주일) 저녁 7시 ~ 7. 15(수) 저녁 까지
장소 : 평화 감리교회(033-241-5621, 후평동 버스종점) 주최 : 춘천 경찰서 교경 협의회 후원 : CBS 기독교 춘천방송, 국민일보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다음세대를 준비하라!

-청소년 비전캠프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향한 도전의 역사입니다

2009. 8. 3일 ~ 8일, 5박 6일간 진행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큰 꿈을 꾼다. 대개는 공부를 잘해 소위 말하는 일류 대학에 진학하여 명성을 얻거나 많은 돈을 버는 자녀들로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 물론 이러한 기대가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은 그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란 어떠한 자녀이고, 어떻게 양육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란?

성경 인물 중 하나님께서 쓰셨던 꿈의 사람,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나라의 인재를 훈련, 준비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은 청소년 요셉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셨다.** 창세기 37: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다. **둘째, 하나님은 요셉이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시련과 고난의 세월을 예비하였다.** "꿈이 있다면 땀을 흘려라."라는 말이 있다. 눈물의 기도와 희생의 땀이 없다면 꿈은 한낱 한여름 밤의 꿈으로 끝날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꿈과 비전이 현실이 되도록 인도하신다. **셋째,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한 시대적 도구로 요셉을 들어 사용하셨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받았던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한계를 극복한 요셉의 신앙을 보여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요셉은 시대적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사사로운 개인적 감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에 순종했던 것이다.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글로벌시대의 하나님나라 인재였다.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크리스천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영적원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무엘 선지자는 부모의 품을 떠나, 경건하지 못한 제사장들 밑에서 교육받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랐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삶에 개입하시어 그를 탁월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영혼과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모의 사명이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될 때까지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또 한 가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현재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들은 다음세대 하나님나라의 주인공들이다. 21세기는 선교적 사명이 완성되는 위대한 세기가 될 것이다. 또한 한반도는 분단의 쓰라린 고통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평화와 통일을 향한 마지막 숨 가쁜 질주를 하고 있다. 통일한국이 세계역사의 무대 위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시대가 다가오는 것이다. 이 위대한 세기의 주인공은 바로 청소년들이다. 성시화운동본부는 복음의 영광을 위한 다음세대의 주인공들을 위하여 '청소년비전캠프'를 준비하였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여 쓰임 받는 하나님나라의 인재가 양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 일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글. 성시화운동본부 정재호 사무총장]

〈 제 2회 2009 청소년 비전캠프 〉

주제 : "비전! 민족! 역사! 도전!"

- ♠ 일 시 : 2009년 8월 3일~8일 (5박6일)
- ♠ 장 소 : 중국(대련,단동,심양,백두산,연길,용정,도문)
- ♠ 프로그램 : 고구려유적지방문, 백두산등정기도회, 단동가나안농군학교, 독립유적지(윤동주생가등), 북한마을조망, 조선족교회집회 등
- ♠ 경 비 : 600,000원(예상)
- ♠ 마 감 : 7월 15일까지, 선착순 15명 (모집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 캠프취소)
- ♠ 주 최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문의: 256-1260, 010-3118-9355
- ♠ 후 원 : 춘천기독교연합회 선교위원회, 통일나눔터, 바나바교회(중국유학생)



춘천홀리클럽(회장 이학규 장로)은 창립 13주년을 기념하여 '춘천 성시화를 위한 성령대부흥회'를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오 주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란 주제로 안디옥감리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개최했다. 14일과 15일에는 서울 금란교회 김홍도 원로목사가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 "천국과 지옥", "복음의 확신과 교회성장"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신앙의 본질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16일에는 최재선 박사(중앙대 명예교수)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을 주제로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에 대한 강의를 하였고, 손기철 장로(건국대 교수)가 "성령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치유집회를 인도하였다. 17일에는 전용태 한국홀리클럽연합회장이 '성시화 운동의 비전'이란 주제로 간증을, 홀리클럽 민들레기도모임 대표 최호자 권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중보기도모임'을 주제로 특강하였다. 마지막집회는 서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주제의 메시지 선포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된 부흥회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 홀리클럽 성시화를 위한 기금 전달



춘천홀리클럽 이학규 회장을 비롯한 임원단은 6월 23일 오후4시 춘천성시화운동본부를 방문, 지난 성령대부흥회의 헌금 중 일부를 춘천성시화를 위한 기금 100만원을 정재호 사무총장에게 전달하였다.

파주기독교연합회 지도자들 춘천방문



파주시 기독교연합회 지도자들이 6월 23일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춘천성시화운동본부를 방문하여 춘천지역의 교회현황, 춘천성시화운동의 역사와 활동들을 소개받으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 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 대표 장효근목사와 홀리클럽회장 이학규장로를 비롯해 임원목회자들이 함께 파주와 춘천 지역의 성시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서로 간에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파주기독교연합회는 파주교시협의회(교회와파주시협의회)를 구성하여 2002년부터 성시화를 목표로 활발한 교회연합과 지역섬김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방문자는 김백현 목사(교시협의회회장, 문산교회), 권순래 목사(중경연합회회장, 금촌중앙교회), 양상규 목사(해비타트경기북부지회 이사장, 영태교회), 윤용철 목사(교시협의회 사무총장, 제일순복음교회) 등이다.

"500석 규모의 넓은 홀"
기분좋은 만남! 소중한 추억!
웨미리 뷔페
회갑연 고희연 돌/백일
각종모임 단체모임
출장뷔페 결혼식피로연 잔치음식
※돌잔치 각종 서비스 : 돌상차림, 케익, 돌잡이 이벤트, 돌잡이 용품 풍신장식, 원판사진, 압축앨범or액자, 포토테이블, 빔프로젝트 기타등등
예/약/문/의
☎(033)251-2154
☎(033)251-2158
찾아오시는 길 .....
웨미리뷔페 (1층주차장)



꺼지지 않는 열정을 품고, 선교의 개척자로 서다!



이번 시간에는 성광장로교회 원로목사님으로 추대되신 김광국 목사님과의 인터뷰입니다.

김광국 목사는 예배와 교육중심의 목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이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평생을 노력하신 분이다. 25년 동안 한결같은 비전으로 성광교회를 건강한 교회로서 영혼을 구원하며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시키는 데 열정을 불태웠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고민하고 노력해왔다. 또한 일평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황무지와도 같은 목양의 현장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 전념했다. 성광교회 담임목회자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으로 완수하고, 선교의 열정으로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의 비전을 들어보자.

신앙배경과 함께 목회자가 된 계기를 말씀해주세요.

우리 가족신앙의 연수는 80여년이 넘는다. 이기풍 선교사님께 전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분이 고향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는 현재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 가족은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여 현재 목회자만 5명이상 배출되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유아세례를 받고 성장하면서 주위 분들로부터 "너는 목사가 되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 내 자신도 목회자 외에 다른 길을 생각해 본적이 거의 없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양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또한 조기은퇴로 젊은 목회자에게 기회를 주고, 새로운 선교의 비전과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

춘천 성광교회에 부임하여 사역하게 된 과정은?

31세에 신학교를 졸업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제주노회에서 장학금과 함께 격려를 많이 받았다. 마음속에 항상 고향 제주도 복음화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신학교 졸업 후 서귀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다. 주님의 뜻으로 순종하여 10년 동안 교회를 섬겼다. 서귀포에서 목회하면서 가진 한 가지 큰 비전이 있다. 다가오는 태평양시대를 대비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비전이었다. 초등학교를 인수하여 그 당시 제주도에서 2번째로 큰 성전을 짓고 유스호스텔을 건축하였다. 서귀포는 귤 농사로 수입이 타 지역보다 높은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많은 힘이 들었다. 어느 날 한라산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새로운 사역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신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기도원에서 내려왔는데 아내가 전하기를, 경기도에서 목회하던 친구가 전화로 부탁하기를, "춘천에 있는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해 달라."는 것이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춘천에 와서 성광교회 입구에 있는 시장골목길을 올라가는데 신기하게도 한라산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똑같은 시장거리가 눈에 들어오는 것 아닌가. "아!, 여기구나."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철학이 있다면?

저의 목회철학은 **"목회철학을 가지고 목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분명한 목회철학 없이 교회성장을 위해 프로그램만을 도입하려는 경향이 많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회철학을 가지고 목회사역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목사안수 받을 때 1주일 기도원에서 기도한 적이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5-6가지의 목회철학을 정립하도록 영감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철학을 25년간 성도들에게 철저히 가르치고자 노력하였다. 그 무엇보다도 "예배와 교육"을 중요시 하였다. 예배의 타락은 곧 신앙의 타락이라 할 수 있다.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한다. 교육기관을 통하여 교회교육을 부흥시키려면 많은 노력이 든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부흥케 하신다. 마지막 또 하나, 팀 사역을 중요시 했다. 장로장립 및 임직식 때 설교의 중요한 주제가 있다. 장로는 목회자의 라이벌 상대가 아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목회자를 돕고 협력해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일꾼들이다. 장로를 비롯해서 직분자들을 경쟁자로 생각하면 목회사역을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이 잘 협력해 주셨다. 깊이 감사드리고 싶다.

성광교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교회에 부임해서 교회주변을 답사하며 기도했는데, 교회를 후평동 지역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며 우선 교육관을 5층으로 건축하게 됐다. 그 당시 건축헌금이 많이 모아져 남은 돈으로 2천 평의 건축 부지를 구입했다.(현 국립춘천박물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두 번째 기억에 남는 일은 현 예배당을 건축한 일이다. 애막골에 있는 2천 평을 팔고 현 예배당부지 5천 평을 구입했다. 새벽마다 기도하며 출애굽기를 설교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담대한 확신을 주셨다. 안되면 나 혼자라도 천막을 치고 강대상을 메고 갈 것을 결심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결과는 순종할 것을 작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큰 분란과 사고 없이 예배당을 건축하여 이진할 수 있었던 것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과 성도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가능하였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른다.

후배 목회자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사랑의 조언은?

설교에 목숨을 걸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스펄젼 목사님은 "당신에게 목회적 소명이 있는지 알려면 당신의 설교를 보아라."라고 말했다. 일주일동안 세상의 소리를 들던 사람들에게 25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야만 한다. 결국 신앙의 체질화는 설교자의 강력한 설교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어디에 있든지 개척자의 심정으로 사역에 임하라고 권면하고 싶다. 옥토는 없다.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는 주님의 사역만이 있을 뿐이다.

조기은퇴와 함께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게 되셨는데, 앞으로의 비전을 말씀해주세요.

오래전에 총회에서 65세 은퇴논의가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다. 이제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전도사역을 건강할 때 자유롭게 전개하고 싶다. 안식년 때 예수전도단 BEDTS와 복음학교(김용의선교사)를 받고 양화진을 탐방한 적이 있었다. 그때 주님께서 물으셨다. "갈 수 있겠느냐?" 해외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미전도 종족과도 같은 복음의 황무지 고향교회와 제주노회에 복음의 빚을 갚고 싶다.** 100년의 역사가 있는 고향교회가 현재 둘로 나누어져있다. 두 교회가 다 어렵다. 하나의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일에 쓰임을 받고자 한다. 서귀포에는 오래전에 가르침을 받았던 청년들이 이제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되어서 초교파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들과 함께 제주도를 복음화 하는데 남은여생을 바치고자 한다. **뜻있는 목회자들과 연합하여 이기풍 선교사님의 순교적 정신을 본받아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불태우고자 한다.** 성광교회 당회원들과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부족한 종의 이런 뜻을 좋게 여겨주시고 은퇴식과 함께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다. 모쪼록 춘천지역의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감사드리며 영원한 춘천인으로 언제든지 협력하고 싶다.



[진행자: 정재호
사진 : 김미경]

www.seeds21.co.kr
모스마스터 여름방학특강
(2주완성)
개강일 : 7월6일, 7월20일
8월3일, 8월17일
MOS
95%의 합격률
씨앗은 100% 합격률에 도전합니다.
Microsoft Office Specialist
Authorized Testing Center
MOS 공식 시험센터
MOS 지정 교육기관
MOS /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 사무자동화기사
컴퓨터활용능력 / 워드프로세서 / OA과정
웹디자인 / 그래픽디자인 / 동영상편집
홈페이지 제작
SCI 씨앗컴퓨터학원
☎ 033) 252-0179 춘천시 후평3동 891-11 (동아목욕탕 3층)



아름다운 항해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온 편지

선교의 부르심

2005년 3월 어느 날 춘천성시신문에 실린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편지를 읽고 큰 부담감이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누르고 있었다. 그럴 당시, 한 자매님의 반강제적 권유로 베드로선교회에서 진행하는 MP(미션 퍼스펙티브)를 공부하게 되었고, 그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증 받고, 방글라데시를 품고 기도하게 되었다. 그러던 2007년 10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방글라데시에 도착하게 되었다.

불모지와 같은 땅에서의 새로운 삶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4식구가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아가야 했다. 이곳의 삶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다. 날마다 더위와 먼지와 싸워야 되며, 툭하면 정전으로 삶이 정지 되는 것 같았다. 또한, 많은 벌레들에게 시달려야 하며, 잠깐 식탁위에 과자를 먹다 놓을 경우 수많은 개미로 버려야 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그리고 냄새를 참는 것도 너무 어려웠다. 30분만 비가와도 도로가 물이 가득하고, 도로엔 질서를 모르는 운전사들, 어디를 가도 횡단보도는 없으며 달리는 차량사이로 곡예 하듯 길을 건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새벽까지 집수리 하며 수면방해를 하는가 하면 날마다 옆집에서 쓰레기를 태워 더위에 창문을 닫아야했다. 거지들의 구걸도 직업화 되어있고, 아기를 업고 있으면 다른 거지보다 동냥이 잘되므로, 이웃집 아기를 돈 주고 빌려서 구걸하는 여인들이 부지기수였다. 솔직한 심정으로 사랑해야할 대상자들이 자꾸 미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이들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다.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두시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주의 강함을 두신 이가 이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시지 않겠는가?

교회 개척과 공부방 사역

많은 어려움과 고생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귀와 입이 열려 나갔고, 15개월 만에 서남쪽 끝자락에 〈샤키라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무슬림국가에서 종교법인 허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기독교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허가서가 첫 번째 오리지널 허가서라고 정부 고위관리가 말해주었다. 이 기쁨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할렐루야! 지금은 도시빈민 아이들의 공부방을 운영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

늦은 나이지만 감사하게도 작년 8월 달부터 다카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다카대학은 모든 수업이 영어로 하며 상당히 수준 높은 학교이다. 이곳에서 1~2년간 더 공부한 후(주3회 출석, 사역에 지장 없음) 이곳에 필요한 프로젝트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작년 10월 16~19일(4일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방글라데시 1기 아버지학교가 개설되어 진행되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헌신과 기도의 열매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린다.

더 큰 비전을 향해

올해 초부터 하나님께서 선교센터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선교센터 부지를 구입하여서 센터 내에 교회, 학교, 병원을 세울 계획이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간절히 바란다.

기도제목

1)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도록.
2) 선교센터 부지를 잘 살 수 있도록.
3) 센터 내에 – 교회, 학교, 병원이 잘 지어질수 있도록.
4) 함께 할 협력선교사들을 보내주시도록.
5) 방글라데시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이 복음을 향해 열려지도록.
6) 성령께서 이슬람인들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셔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방글라데시에서 송00 방00 선교사 올림







[선교사 열전 I]



찰스 토마스 스터드
(Charles Thomas Studd)

C.T 스터드(1862~1931)는 학생 복음운동의 조상으로 유명한 영국의 '캠브리지 세븐' 중 한 사람으로 졸업 후 46년 동안 중국, 인도 선교를 하고 중앙아프리카를 개척한 선교사

★ **출생**: 1862년 10월 2일, 영국 노샘프턴셔 출생
★ **사망**: 1931년 7월 16일 사망, 벨기에 콩고(아프리카)
★ **사역지**: 인도, 중국, 아프리카
★ **그가 죽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다만 몇 가지 기뻐할 것이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이 나를 중국으로 부르셨고, 내가 사랑한 모든 이들로부터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갔던 것.
2.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부자 청년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기쁘게 행동으로 옮긴 것.
3. 1910년 Bibby정기선(배)에서 홀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담당히 이 일을 위해 내 삶을 바친 것. 그 이후로 그것이 수단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세계의 모든 곳을 위한 일이 된 것. 그러므로 오직 나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내게 할 일을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한 번도 거부하지 않았다는 바로 그것이다.

제 6차 jdm 세계선교대회

"열방, 복음, 캠퍼스"

2009. 8. 3(월) – 8(토), 대전 한남대캠퍼스

1997년 춘천에서 시작된 JDM(예수제자운동)은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는 캠퍼스 사역을 중심으로 현재 27개국 70여명의 선교사가 70여개의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1989년 제 1회 세계선교대회를 시작으로 매 4년마다 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해왔다. 올해 제 6차 선교대회를 "열방, 캠퍼스, 복음"이란 주제로 8월 3일(월) – 8일(토), 5박6일 동안 대전 한남대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주 강사로는 윤태호 목사(JDM 대표)와 10/40창을 제창한 루이스 부시 박사(세계변혁운동 국제대표)가 섬기며, 특강사로 한철호 선교사(선교한국 위원장), 최영수 목사(직장사역연구소)가 각각 대학생과 직장인을 위한 강의로 섬긴다. 이 외에 60여명의 현장 선교사들이 80여 강좌의 전문적인 선교강좌를 준비하였다. 또한 130명의 해외지체들이 참석하여 함께 5박6일 동안 소그룹을 활동을 하며 생생하고 가장 밀접한 선교를 나눌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밖에도 20여개국의 선교박람회, 현장을 체험하는 특별프로그램 G.E.T(Global Experience Time), 캠퍼스 사역 전시관, 선교사와의 소그룹, 선교역사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교회에서 단체 10명 이상일 경우 2만원 할인 된 회비 11만원에 등록할 수 있다.

(문의 033-243-6701)

효신 푸른학교 입학 설명회

일시: 2009. 7. 25 (토) 오후 5:00 (1차) / 2009. 8. 22 (토) 오후 2:00 (2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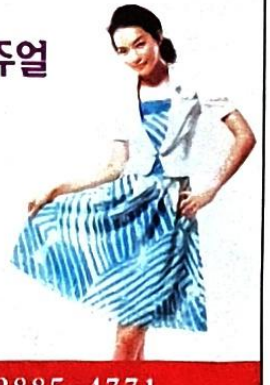
(재)기독교한국효신선교회는 효신중고등학교 창립 50주년을 맞아 그동안 맥이 끊겼던 학교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고자 입학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기독교학교에 관심을 둔 학부모께서는 참석하시어 자녀교육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길 기원합니다.

■ 학교 형태 및 명칭: 학교 형태의 평생 교육기관 효신푸른학교(예정)
■ 교육의 특징: 기독교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글로컬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영어교육에 중점을 두며 학생 개인별 맞춤교육을 위한 소규모 학교 체제
■ 입학대상: 남녀 중고등학교 학생
■ 장소: 춘천시 온의동 14번지 효신선교회(태백기든 뒤)
■ 문의: 033-254-3205 / 011-9737-1919
■ 홈페이지: www.hyoshin.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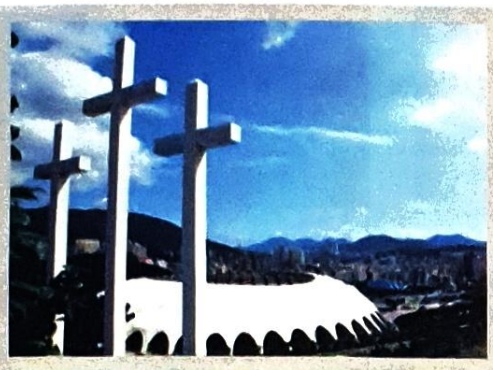
결혼 예복 여성정장 캐쥬얼

춘천 SI

대표 지경선 집사(갈릴리감리교회)



033)256-8448, 010-2885-4771



가장 건강한 교회

1994년에 부산에서 개척되어 헤마다 놀라운 속도로 부흥하고 있는 「풍성한교회」는 국제적으로 정평이 나있는 「교회 건강도 NCD」 컨설팅결과 교회건강수치 107점이라는 세계기록을 세우며, 가장 건강한 교회로 소문이 나있다. 해마다 1만 명이 넘는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두 날개 선교센터」의 이름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하는 「풍성한교회」의 이야기들을 언론 등에 보도된 기사를 토대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자.

의미 있는 교회탐방순서로 부산 「풍성한교회」(김성곤 목사)편입니다

「두 날개 국제컨퍼런스」

풍성한교회의 대명사는 「두 날개 국제컨퍼런스」라고 할 정도로 한국 교회에 이미 널리 알려진 프로그램이다. 2002년부터 시작된 풍성한교회 주최의 「두 날개 국제컨퍼런스」는 2002년에 참석자 200명을 시작으로 8년 만에 서울에서 1만 5천명이 참석하는 세계적인 대회로 성장했다. 참석한 교회 지도자들은 이 컨퍼런스를 통해 식은 열정을 회복하고, 교회 현장으로 돌아가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비전과 동기를 부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했다. 이 시스템은 지난 십 수 년간 현장에서 임상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교회 현장에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받은 것이다.

「두 날개 시스템」은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독수리와 같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시스템이며, 강력한 재생산 사역자를 세우는 시스템이다. 과거에는 교회 성장과 평신도 훈련을 프로그램에 의존해왔다면 「두 날개 시스템」은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다. 벤츠 승용차를 만드는 프로세스를 거치면 벤츠 승용차가 자연스럽게 생산되듯이 두 날개 양육시스템을 통해 가치변화를 경험하고 비전을 발견하면 사람은 변화되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









마태복음 28:18-20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한 프로세스가 두 날개 양육시스템이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두 날개 양육시스템은 목회 종합시스템으로, "복음의 절대 능력, 제자 삼는 비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라는 3가지 핵심 주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무엇보다 평신도가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는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두 날개란 대그룹 날개인 축제예배(대예배)와 소그룹 날개인 전인적인 셀 가족 모임이 균형을 이룬 것을 뜻한다. 두 날개 양육 시스템은 6가지로 나누어 단계별로 진행되는데, 전도, 정착, 양육, 제자, 군사, 재생산훈련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전도이다. 성경적인 소그룹 전도전략인 열린 모임은 3-4명이 팀을 이루어 한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그 지역을 장악해 가는 성경적인 소그룹 침투전도이다. 이것은 주님(마 28:18-20)과 사도 바울의 전도방법(행 16:4)이었으며, 21세기 포스트 모던시대의 전도대안이다. 전도 소그룹 열린 모임은 12주로 진행되며, 개인전도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팀 전도이며 각 직장, 대학 병원, 가정에서 관계를 맺어 전도하는 소그룹 관계전도로서 마지막 시대 탁월한 전도 대안이라고 불린다. 2단계는 정착이다. 교회에 들어온 새 가족만 잘 정착시켜도 교회는 성장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렇기에 뒷문을 막는 일이 중요하다. 풍성한교회에서는 새 가족이 등록하면 섬김이를 붙여준다. 섬김이는 매 주중에 만나 새 가족과 식사하며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교회와 사람들을 소개시키며 돕는 역할을 한다. 3단계는 양육이다. 양육반은 총12주 과정으로 내면의 쓴 뿌리와 견고한 진을 파하는 1일 전인적 치유수양회를 통해 영육의 치유와 회복을, 양육의 기쁨에는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와 승리의 확신, 묵상의 시간(Q.T) 등으로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동시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정체성을 확립하며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일꾼이 되도록 그 기초를 다지는 양육과정이다. 4단계는 제자훈련이다. 개설한 「세계비전 제자대학」은 거듭난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훈련하는 신앙의 사관학교라고 할 수 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영적인 장교로 배출해 내는 곳이 세계비전 제자대학이다. 5단계는 군사훈련이다. 군사훈련은 자신의 신분이 군사임을 자각하는 시간이다. 군사로 부르셨음을 깨닫고 순종하는 시간이다.

군사의 제일 되는 원칙은 순종이다. 군사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한다. 부르신 자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요, 부르신 자의 소망이 곧 나의 소망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러한 강력한 군사를 통하여 세계비전을 이루어 가신다. 마지막으로 6단계는 재생산훈련이다. 재생산훈련은 재생산 사역자로 훈련하는 과정이다.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이듯 제자훈련의 진정한 열매는 재생산인 것이다.



더 큰 꿈을 양에

김성곤 목사는 한국 교회의 문제에 대해 "한 마디로 문제는 세속화다.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는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만이 성도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든다."라고 역설한다. 이루고자 하는 「풍성한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선언문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즉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2천 2만 세계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이다. 담임자인 김성곤 목사에 의하면 21세기의 제자들은 1세기 예수님의 명령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고 제자를 삼아 재생산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리하여 풍성한교회는 2만 명의 셀 리더를 재생산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감당하며, 지역과 민족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꿈을 품고 있다. 또한 2천 명의 해외선교사를 열방에 파송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제자삼아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웅대한 비전을 품고 있는 것이다.

[취재 최상도 / 사진 김미경]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박 중 삼 팀장 (효자감리교회 집사)

현 춘천지역단 춘천비전지점 FM (Field Manager)
삼성화재 본사 연도상 신인 우수상 수상 (2008. 6. 10)
2009 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 (2009. 5)

처음부터 끝까지 부끄럽지 않게 믿음으로 서비스합니다!

H.P. 010-5364-4868
TEL. 033-256-9310
FAX. 033-256-9313

* 미래를 염려하지는 말아야 하지만 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동차 / 화재 및 재물 / 건강 (상해, 질병 실손의료비, 일당 및 사망 담보) / 비용 (운전중 비용손해-벌금, 형사합의금 등) /
기타 (여행자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등

생활에서 생명까지 성도님을 사랑하는 가족으로 섬기겠습니다!

* 성도님 인생의 터닝포인트 기회를 드립니다.
우수인력 및 구직자를 위한 리쿠르팅
(매주 수요일 09:30~16:00 삼성화재 직업설명회 실시)



| 영혼의 양식

당신은 영생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딤후 3:15, 요 5:24)



김병철 목사
(주성원교회)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보면, 노인이 바다에서 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합니다. 힘도 없는 노인은 고기를 잡아서 먹을 것도 아닌데도 걸려든 큰 고기를 잡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태한 상황으로 빠져 들게 됩니다. 특히 노인은 고기를 잡는 데서부터 잡아서 상어로부터 고기를 지키는데 까지 많은 번민을 합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는 힘과 능력, 여자, 쾌락을 다 누렸다고 자랑하지만 지금 자신의 모습은 고기 한 마리 지키지 못해 배를 저어야 할 노로 상어와 싸우다 그 노까지도 상어 떼들에게 다 뜯어 먹히고 노인은 그만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결국 바다 한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저 자신의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신세가 된것을 한탄하고나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모르면 아무리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도 이와 같이 결과는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결국 이는 많은 것을 가졌어도 누리지 못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준비되어야 할 때에(시간 · 힘 · 능력 · 도구 · 기회)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준비해야 합니다.**

인생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배움의 연속과 준비의 과정 중에 있으며, 특히 믿음의 가정위에 반석처럼 세워진 교육, 가정, 신앙은 성경의 기초위에 세워지고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신앙 교육도 어렸을 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결혼도 지식을 따라서 준비해야 합니다(벧전 3:7). 그러나 **신앙생활의 보다 중요한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과 마무리인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 서있는 것입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 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상에서 그의 삶이 그의 죽음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며 우리의 죽음이 영광스럽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야 말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최대의 복음의 중심은 영원한 운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좀 더 잘살고 못살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고통하고 평안한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사는가? 영원한 둘째 사망을 맞느냐?의 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솔로몬보다 더 큰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러한 사람을 만나본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솔로몬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이 세상의 온갖 많은 만족을 누리고 지혜를 자랑하다가 결국은 지혜자와 우매자가 일반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 이라고 허무하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전도서에는 '헛되다' 라는 표현이 무려 30번이나 나오고 심판에 관하여는 전도서 3:17절을 시작으로 마지막(전 11:9)(전 12:14)장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는 말이 있으며 인생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철이 들 때는 죽음을 생각한다고 철학자 니케는 말하며, 예수님께서도 또한 이 솔로몬의 영화가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눅 12:27).

그렇습니다. 이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솔로몬의 영화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백합화는 솔로몬의 영화보다 화려하지 못하지만 3천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아름답고 자태롭게 그 향기를 바라고 있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영생을 얻는 길은 첫 번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요 14:6). 두 번째 영생의 진리를 사모해야 합니다(전 3:11). 세 번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요 17:3). 네 번째 겸손하게 성경과 영생을 인도하시는 지도자의 말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 사색의 창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조나단 Jonathan (석사교회)

저는 2년 전에 강원대학교에서 리서치 일을 하기 위해 춘천에 왔습니다.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 저는 많은 교회들을 보고 흥분되었습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나의 마음을 가장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춘천은 매우 깨끗하고 조용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산과 강으로 가득하여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모든 장소를 방문하고 문화를 배웠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저는 한국의 문화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답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속 깊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이곳에서의 나의 생활을 통해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곳 기후는 나를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겨울의 눈은 나의 인생에서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저는 인도 첸나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천천히 춘천의 기후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추운 기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건강에 발생된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나의 영적인 삶도 변화하기 시작했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많은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도시의 깨끗함과 정결함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도시와 같이 나의 매일의 삶이 정결함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경건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더 깊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이며, 그의 음성 듣기를 훈련하고 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내 자신의 의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계속 공부하고 그분의 뜻의 방향으로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기도입니다.

저를 한국, 그리고 이곳 춘천으로 인도하시고 더 깊은 영적인 삶을 배우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독자 투고 사색의 창은 독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곳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방법 : hc1260@hanmail.net (기사투고) T. 256-1260~1 F. 033)257-1260

제시뉴욕 · 레모네이드
럭셔리한 이름다운 멋

결혼예복 · 숙녀복 전문
패 · 션 · 리 · 더 제 시
모녀가 함께 입는 명품
많은 연예인이 즐겨 입는 명품
제 시 뉴 욕 로 선 명
대표 전 순 천 집사 (순복음춘천교회)
☎ 252-7262
위치 조양동 신한은행강원본부 앞

예 스 비
에스비 브라운상가

최고의 품질과 저렴한 가격!
"당신을 20대의 아름다움으로 초대합니다."
대표 전 순 천 집사 (순복음춘천교회)
☎ 253-2001
위치 브라운상가 프리머스 극장 입구

평신도 사역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삶



노아 인테리어 대표
한민수 안수집사(금산교회) 편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쓰실까? 그 때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났을 때부터이다. 사도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으로 경험한 사람이라야 그분의 일을 시작하신다.

4대째 신앙의 가문

아담하고 예쁘게 꾸며진 우두동 노아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예술적 감각이 물씬 묻어나는 한민수 집사를 만났다. 사무실 중앙에 있는 탁자 옆에는 그가 늘 즐겨 찬양하는 기타가 놓여있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이 넓은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찬양을 즐겨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 물론, 한 집사가 이렇게 매일 매일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살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모태신앙으로 벌써 아들까지 4대째 신앙의 연륜이 있기까지는 친할머니의 영향이 컸다. 금산교회 초대 권사이시면서 창립멤버격인 친할머니 덕에 서면 한씨 집안에 복음의 영광의 빛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어머니역시 할머니를 따라 믿음이 좋으셨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많이 핍박하셨다. 그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2년 전 병상에서 세례를 받고 편안이 돌아가신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교회에서 자란 모태신앙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경험한 것처럼 한 집사는 그리 큰 굴곡 없이 학생부 회장, 청년부 회장을 하면서 사람들 보기에 좋은 신앙인으로 지냈다. 춘천을 떠나 서울에서 회사를 다닐 때에도 그 바쁜 중에서도 주일이면 꼬박꼬박 춘천에 내려와 성가대 대장으로 봉사하면서 교회를 섬겼다. 철저한 책임의식 때문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게 최선을 다했다. 아쉬운 것은 그 내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열정도 감사도 감격도 없이... 내가 해야 될 일을 꼭 하는 그런 신실한(?)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이다. 직장에서도 누구보다도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다. "나쁜 짓만 안하면 되지, 뭐!"라면서 자신을 합리화했다. 직장에서 3년간 일을 FM(정석)대로 잘 배우고 난 뒤 춘천에 건설 경력사원으로 일을 새롭게 시작했다. 이 당시에도 한 집사는 교회에서는 신앙인! 사회에서는 화통한 사람으로 잘 생활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한 집사에게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중심(믿음)을 원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남

2005년 새로운 신앙의 전기가 마련된다. 알파코스를 참여한 아내가 완전히 변했다. 아내의 변화에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성령 수양회를 통해서 찬양하다가 몇 바가지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 그동안의 죄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그때부터 결단하고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굳은 결심을 한다. 하지만 신앙에는 기복이 있듯이 그 은혜의 마음이 없어질 때쯤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일을 마련해 놓으셨다. 제 12기 아버지학교가 그것이다. 아내가 미리 신청을 해 두었고 여러 사람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다. 하지만 사실 가고 싶지 않았다. 이리저리 빼다가 하루만 참여해 보라는 권유에 할 수없이 참여했다. 첫날 모임에서 큰 도전과 은혜를 받고 계속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2주차에도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에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그날 받은 은혜와 너무 일치하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들려주셨다.

"주는 내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 … 주 나를 놓지 마소서 … 날 포기하지 마소서" 바로 한 집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이었다.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고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다. 신매대교에서 차를 멈추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전율을 느꼈고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찬양사역자로의 부르심

아버지학교를 통해서 너무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조금씩 한 집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도록 부르셨다. 그 이전과는 다른 사역이 시작되고 있었다. 물론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확실히 그 이전과는 다른 사역이 분명하다. 대학교 때 아버지의 반대로 인해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배운 음악은 이때부터는 "딴따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찬양의 도구"로 변모했다. 젊었을 때는 언더그라운드 가수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었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즐기기 위한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되었다. 지금은 아버지학교 찬양 팀으로, 교회 찬양과 성가대로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장사역에서 목장으로 섬기고 있다. 이전과 너무도 다른 점은 이렇게 많은 사역가운데도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사실이다. 기도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아버지학교 모임이 기다려진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고 싶어서 Q·T를 시작하였고 가정예배가 회복되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충성스런 한 집사로 새롭게 태어났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성장시켜가고 계신다. 어떻게 쓰실 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삶을 사는 데는 많은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하지만 한 집사는 늘 기대와 감격이 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는 사업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 그리고 평안하다. 여러 고비 고비를 겪었지만 새롭게 배운 인테리어와 건설일은 적성에 너무 잘 맞았다.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적성에 잘 맞는다는 말을 많이 듣고 인정받고 있다. 그러다가 2007년 말에 지금의 노아 인테리어를 차리게 되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사업하고 있다.

지금도 평신도로서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사역이 한 주가 짧을 만큼 쉴 새 없이 바쁘게 진행 된다. 어떨 때는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 하지만 맡겨주셨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얼마 전 방글라데시 다카에 아버지학교 1기를 함께 세웠다. 앞으로의 꿈은 아버지학교를 평양에서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다. 또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도 준비 중이다.

'노아'라는 이름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다. 한 집사가 은혜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노아의 홍수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셨다.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라는 의미이다. 이 이름은 너무나 두려운 이름이라고 한 집사는 고백한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노아'의 이름이 헛되지 않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이 사용되어지는 한 집사와 노아 인테리어가 되기를 기도한다.

[취재 유병준, 진행 정재호, 사진 김미경]







Dreaming Mission Language Training
미라클 영어/회화 훈련소 어학원 (기본 1단계 13기)

미라클 체험수기

단3개월 훈련으로 영어 걱정 안하는 현민이 이야기
"현민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명창에서 춘천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는 딸의 영어공부 때문에 고민하던 중 미라클훈련을 받은 지인을 통해 미라클을 소개 받게 되었지요. 다른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학원과 과외를 했다는데 우리 아이는 시골에서 그런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아서 내심 걱정이 되었어요. 이제 2개월 된 지니 인증학교 입학인데 영어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었어요. 공개설명을 듣는 중 바로 저 방법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선택이 적중했구요. 학원이나 과외를 전혀 받지 않은 아이가 미라클 훈련을 딱 3개월 받고 나서 영어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더구요. 미라클식으로 하니 학교영어뿐 아니라 영어가 쉽다는 것을 깨닫고는 이 방법에 대해 더욱 확신하더구요. 물론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영어 시교육은 받지를 않았어요. 지금도 영어는 교과서의 문장이 아닌 곳에서 문제가 나와도 크게 걱정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만족서 최상 위권의 성적을 유지해요. 영어 때문에 아이 자기가 뒷걸음치거나 시행착오로 시간 낭비 하지 않고 곧바로 훈련을 받게 돼서 너무나 감사해요" - 남여중 3년 김현민엄마 -

이전 정말 기적이다. 몇나하면 그훈한 영어학습지 하나도 집해 본적이 없는 아이.
"내가 왜 영어를 해야 돼!니 인해!!" 현필 놀기 좋아하는 5학년 아들이 화를 내면서 불평을 늘어놓을때 아이가 이렇게 싫어하는데 효과가 있을지 걱정스러웠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흥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하루하루 틀림 없이 즐겁게 수개월을 마쳤다. 중고대학생들 그리고 심지어 타지방에서 올라온 전직 고교영어교사와 목감이 훈련을 한것이다. 세진이 또래 다수의 초등학생들과 함께. 이건 정말 기적이다. 왜냐하면 특히 세진이는 학원은 물론 그훈한 영어학습지 하나도 집해 본적이 없는 아이였기 때문이다. 이랬던 아이가 독해는 물론 문법 회화까지 섭게 이해하고 실제로 사용할 정도로 미라클영어는 정말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더욱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주 재밌게 학습하고 영어에 대해 쭉 흥미를 유지해 왔다. 우리 아이에게 영어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와 이제 영어를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최고의 방법'을 습득시켜 주신 목사님께 저희 부부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이세진(대부설초 5년/순복음춘천교회 부모-

'정말 획기적으로 쉽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훈련 수료자들의 끊임없는 입소문과 추천이 입증을 하고 있다'
'서울에서 매일 춘천까지 와서 훈련받은 친구 소개로 알았어요. 훈천에 이런 곳이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현직 중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초등학생 자기 자녀에게, 동료에게, 가까운 지인에게 적극 추천하는 곳이다.'
'반신반의로 왔던 공개설명회 참석자들이 거의 100% 등록 했습니다!'
'등·고생과 초등학생들에게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단순한 이해 가 아닌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미라클식 방법으로 '집중적인 훈련' 을 해야만 균형잡힌 영어(문법 독해, 회화)까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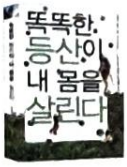
1. 개강일시 : 2009년 8월 17일(월) 오후 6시30분(시간엄수)
2. 기 간 : 8월 17일(월) ~ 9월 11일(금)
(매주 월,화,목,금 6:40 ~ 10:10P.M. special training
3. 장 소 : 미라클 영어/회화 훈련소 어학원 (교통편 - 카톨 22번버스)
4. 본훈련소는
① 초5,6년 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등 누구나 참여만 하면 영어컴플렉스 완전해방! 꿈과 비전을 심어준다.
② 영어의 근본 핵심을 통해서 훈련시키므로 회화뿐만 아니라 영어실력 전반(리스닝, 발음, 문법, 빠른독해)에 대해 완벽히 핵심을 습득할 수 있으므로 예비중학생이나 영어에 자신감을 잃은 중고생 자녀에게도 매우 좋습니다.
③ 영어/회화를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 최단기간에 영어/회화를 정복하고 싶으신 분
5. 훈련등록마감 : 7월 31일(금)까지 신청순 마감(조기마감을 주의 하세요) ☎ 262-9105(구원영어), 264-0691, 010-3510-0691.
6. 공개설명회 및 체험사례발표 : 1차(7월 11일(토)) / 2차(7월 18일(토)) / 3차(7월 25일(토)) 오후5시 ~ 6시30분 ※시간엄수 요망
※※ 훈련생 자격 : ①기독교 신앙인 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열린 마음의 소유자. ②반드시 3차의 공개설명회 중 1회를 참석한 자.(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다음카페(http://cafe.daum.net/dmlu)에 더 많은 '미라클 체험수기'가 있습니다.

장/기/간/명/으/로 영어가 나오 됩니다
(집중 실행에 참여하게 됩니다)
영어 자신 없으신 분
영어 두려운 어학생

건강을 위한 운동

똑똑한 등산이 내 몸을 살린다 (V)





「똑똑한 등산이 내 몸을 살린다」는 야마모토 마사요시의 저서(선우섭 옮김, 마운틴 북스, 2008)이다. 그의 저서는 왜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하고 운동 중에 등산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운동 생리학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1. 등산과 건강, 2. 등산과 피로 3. 중·고령층과 여성의 등산에 이어 4 등산과 체력 트레이닝을 살펴봄으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4. 등산과 체력 트레이닝

피로 예방에 국한하지 않고 근육 경련, 근육통, 어깨 통증, 무릎 관절통, 요통 등 등산에서 자주 발생하는 신체적인 이상은 평상시의 적절한 체력 트레이닝으로 예방할 수 있다. 트레이닝에 의한 체력 강화는 산에서 발생하는 것의 모든 신체적인 이상을 예방할 수 있는 특효약이라고 할 수 있다.

1) 등산에 필요한 체력이란

(1) 등산 체력과 스포츠 체력의 차이

A. **스피드** : 등산은 스피드가 가장 낮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피드계의 체력인 순발력과 민첩성을 그리 크게 요구하지 않는다.

B. **힘(근력)** : 30kg의 배낭을 등에 짊어지고 14도에 해당하는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에도 최대 근력의 50% 정도의 힘만을 발휘하고 있다. 때문에 극도로 강한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C. **지구력** : 모든 스포츠 중에서 운동시간이 가장 길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지구력은 매우 중요한 체력 요인이다. 최대 산소 섭취량이란 전신 지구력을 나타내는 생리학적인 지표이지만 등산 중에는 최대 산소 섭취량의 50~60%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마라톤은 80% 수준). 따라서 등산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력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등산은 어느 정도의 체력만 있으면 연령, 성별을 불문하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이다.

2) 여성을 위한 등산 요령

(1) 지구력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장시간에 걸쳐서 근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육 속에서 에너지를 끊임없이 생성해야 한다. 이러한 에너지는 근육 속에 있는 영양소가 산소를 이용하여 연소되면서 생성된다. 따라서 영양소를 정기적으로 공급한다는 가정 하에 근지구력의 좋고 나쁨은 근육이 얼마만큼 산소를 많이 사용하느냐에 달렸다. 이 능력은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작용을 하는 폐, 심장, 혈관, 혈액 등의 호흡·순환계의 능력(산소 공급 능력)과 근육 내부에서 산소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생성하는 능력(산소 이용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한 능력을 나타내는 2가지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최대 산소 섭취량'과 '무산소성 작업 역치'가 그것이다.

(2) 최대 산소 섭취량

최대 산소 섭취량은 격한 운동을 하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소 섭취량이 많아진다. 그러나 무한대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점에서 정체하게 되는데 이 시점의 값을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고 한다. 최대 산소 섭취량은 개인차가 있는데, 지속성 트레이닝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사람은 일반인 보다 2배가 높다. 즉 2배 만큼 빠르게 걸을 수 있다. 모든 운동에서 최대 산소 섭취량이 높을수록 좋은 경기 성적을 낸다. 최대 산소 섭취량은 행동 체력뿐만 아니라 방위 체력에도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최대 산소 섭취량이 낮은 사람은 저온이나 저산소에 약하고 면역 기능도 낮고(감기에 걸리기 쉬움), 각종 생활습관병에 걸리기 쉽다고 한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인간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일반적인 섭취량은 40㎖/kg/분으로 나타난다. 몸무게 1kg당 1분에 40㎖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60kg이면 40㎖×60kg×1분 = 2400㎖, 즉 2.4ℓ 이다.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의 수준은 50㎖이 정도인데 이는 등산이 최대하 운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정도의 최대 산소 섭취량은 지구성 트레이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수치이다.

(3) 무산소성 작업 역치

일반적으로 최대 산소 섭취량이 나타나는 강도에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이다. 그 이유는 이러한 강도의 운동을 지속하면 젖산이 급격하게 축적되어 근육이 피로해지기 때문이다. 등산은 젖산이 축적되기 전의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수준을 운동생리학에서는 무산소성 작업 역치(AT)라고 한다. 따라서 등산이나 마라톤, 크로스컨트리 스키, 트라이애슬론과 같은 운동의 경기 성적은 최대 산소 섭취량보다도 AT와 밀접한 관계를 나타낸다. 일반인들의 AT는 최대 산소 섭취량의 50~60% 정도에 나타나지만 지구성 트레이닝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사람들은 70~80% 수준에 나타나기 때문에 산소 섭취량이 높은 수준에서 운동을 지속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최대 산소 섭취량을 보다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AT란 장시간에 걸쳐서 운동을 할 때에 최대 산소 섭취량의 몇 %를 이용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생리적인 지표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3) 등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트레이닝이 좋을까

(1) 가장 좋은 트레이닝은 등산이다.

(2) 평지(일상생활)에서의 트레이닝은 왜 필요한가?

등산이 가장 좋은 트레이닝이지만 일주일에 1회 이상 매주하기 쉽지 않다. 통계적으로 한 달에 1회 정도로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 따라서 피로하지 않고 쾌적한 등산을 하기 위해서는 평지에서 보강 트레이닝을 실시해야 한다.

(3) 내리막길 보행 능력 강화의 중요성

일본 유명 등산가는 "산에서 내리막길을 걷는 방법을 보면 현역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말은 내리막길을 걷는 능력은 평지에서 트레이닝을 해도 향상되지 않고 실제 등산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계단 오르내리기 트레이닝의 효과

계단 오르내리기는 등산의 내리막길 또는 오르막길에 필요한 체력을 양성하는 이상적인 트레이닝이 된다. 계단의 높이와 걷는 속도를 적절하게 설정하여 반복하면 심폐 기능뿐만 아니라 다리 근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전형적인 인터벌 트레이닝이 된다.

4) 구체적인 트레이닝 방법

최대 산소 섭취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간보다는 강도가 중요하고, AT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강도 보다는 시간이 중요하다. 등산에서는 최대 산소 섭취량과 AT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둘 모두를 단련시킬 수 있는 트레이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즉 30~40분간에 걸쳐서 고강도로 운동하는 날(최대 산소 섭취량을 강화시키는 날)과 1~2시간에 걸쳐서 낮은 강도로 운동하는 날(AT를 강화시키는 날)을 교대로 설정하면 좋을 것이다.

5) 운동량의 중요성

스피드형 종목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습량뿐만 아니라 연습의 질도 중요하다. 또한 나이도 중요하다. 이에 비해서 지구성형 종목에서는 연습의 질보다는 양이 중요하다. 또한 나이의 영향도 크게 받지 않는다. 등산은 전형적인 지구성형 운동으로 등산 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오버 트레이닝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트레이닝 량을 늘리는 것이 좋다. 등산의 가장 중요한 트레이닝은 등산이다.

그동안 「똑똑한 등산이 내 몸을 살린다」란 책을 통해서 운동생리학적으로 등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했는데, 지면으로 인하여 5회에 연재 되므로 효과가 많이 반감되었다. 하지만 효과적인 운동을 위해 운동생리학적인 이해가 된 것이 소득이라 하겠다.

[편집위원 고 재 만]

미라클제첨수기

☞ 국민일보 2008년 12월 16일 뉴스(사회면)에서,

"4개월의 집중 훈련으로 입에서 영어 기 술~ 술~ 나오게 만드 는영감사기 춘천에서 요즘 인기다. 최 목사는토종 영어 교수법 전문가다. 춘천 회천 횬주는 물론 서울과수도권, 심지어부산에서도 올라왔다. 4개월 훈련 을마친 졸업 생들은 "중고교 때 진작 이런 식으로 배웠더라면 영어 고민이 없었을 것"이라는감탄과 그미묘의 글을 남겼다. 미국 대학 경영학교수로 있다 온최 원다는 김모(68)씨는 "미영어권에서 영어 교육을 어렇게 시켜이럴지 고민해왔는데 이곳에 해답이 있었다"며최 목사의 교수법에 놀라워했다."

☞ 영어의 눈이 새롭게 열려_기존 영어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

"저는 '4개월만 하면 영어가술술 나온다' 라며말씀하시는 이목의 권유로 미라클영어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영어가 술술~ ~!'이것은 저의 희망사항이었죠. '나름대로 열심히 10년 이상영어공부를 해도이 수준인데 4개월만에 가능할까' 의심의 생겼지만 결국 공개설명회를 참석하여 체험자들의 체험담과 영어방법에 대한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이거우 훈련에 참가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훈련한지 며칠이 지나지 느낌이 오기시작하더니, 2개월 만에 '아미라클 방법은근본적으로 다르구나' 하는것을 본명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처 벽들을 하나하나 쌓이 올라서 높고 큰 탑을 완성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벽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탑을 쌓는 쉽고 빠른 방법까지도 알려주시므로 엄마든지 배운 것을 바탕으로 자신이스스로 응용하며 영어를 사용할수 있었습니다. 정말 필요한벽돌들을 체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닌무작위의 벽돌들만 주고 '탑은본인이 알아서 쌓는 것입니다'하고 마는 기존영어교육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다른 것이었습니다. 예를들자면 서는 어학연수를 위해 휴학을 했습니다. 어학연수 효과를 국내최 시키고자 국내에서 영어전비를 위해 오전에 입주일에 두번 1:1 영어과외를 받았고, 저녁에는 미라클영어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더욱 비교가 되었습니다. 과외 선생님은 호주에서 7년 계실던 분이라 영어실력은 두 말할 필요 없이 좋았습니다. 그런데선생님은 제게 회화 문장 전체의 뜻만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사용하려면 문장을 달달 외우는 수밖에없었습니다. 왜 그런 문장을 써야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몰랐으므로 응용시켜 내가 하고 싶은 다른 문장을 만드는 것은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영어의근본적인 원리를 선경하여설명해면서 문장을어떻게 내가 때문에 어때만 하면 문장을 힘들게외울 필요가 없이 스스로 엄마든지 응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 데에도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들도 자절로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아주 쉽고 제미있게 설명해 주시서 실제로상당수의 5·6학년 중·고생들도 함께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국 저는 더 비싼 돈을 내며 영어과외를 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훨씬 효과가 있는 미라클훈련을 전적으로 하기로결심했습니다. 홍보지를 보며 설마설마 하던 것이 정말 제게도 일어났습니다. 꿈에서 구체적으로 외국인과 얘기하기도 하고, 또 훈련 후 집에 돌아오면 배운 것들이 머리속에서 돌아서 기록까지 사용도 해복고 미라클을 시작한지 일이만 되었을때 원래 알고 있던 외국인이내게 '내가 정보다월씬 더 너의 말을 잘이해 할 수 있다 영어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다'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쉽게 영어의 탑을 쌓아 올려주시는데 탑의 기초인머릿돌을 처음 세우는것부터 시작하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심식만 하면 4개월 후면 영어라는 견고한탑을 완성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Miracle하기적입니다"

-고우리맘대 영어영문과 천 휴학중 -

☞ 참석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냥 참석만했는데_

"영어가이렇게 쉽고 재미있는 줄 이전에 몰랐어요' '영화가 들려요' '꿈에서 영어로 꿈을 꿨어요' '길 가는데 영어가 튀어나와요' '학교 영어가너무 쉬워요 친구들이 너 영어 어디서 배웠니고 물어봐요' '이렇게 쉬운 걸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소지.' '참석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냥 참석만 했는데 그어렵게 느껴지던 문법이 너무나 쉽게 정리 되구 습득이 되구요 대강 단어를외워 알추며독해를 해서 독해를 해놓고도 뭐었는지 틀렸는지 자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본명한 지신감을 기지고 독해를 하고 또한 속도도 2배 이상 빨라졌어요. 별도로 집에서 따로 시간을 내서 복습하지 않아도 자려해서 습득이 되니까너무 좋아요' '선생님께 매일 평균3시간 지터고 다니면서 훈련 했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고 희미가있어서 3시간 반이 언제 지나갔는지 몰라요' '그동안영어 때문에얼우도 못 냈던 미국사장을 부딪혀 볼 희망이 생겨서 너무 즐겁다' '수준있는 완벽한 영어구사 능력은 완벽한 문법과 독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말이 실감이 돼요 문법과 독해 그리고 발음이 너무나 정확하게 습득이 돼요 정말 만기 어려울 정도예요' '영어라면 지긋지긋해서 (학년 교양과목을 끝으로 내 평지에 영어란없다고 선언했는데 이젠 영어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하니라도 더 일찍주시려고 일정을 다하는 모습에 감사드린다' '에비 중학생에게도 정말 추천해주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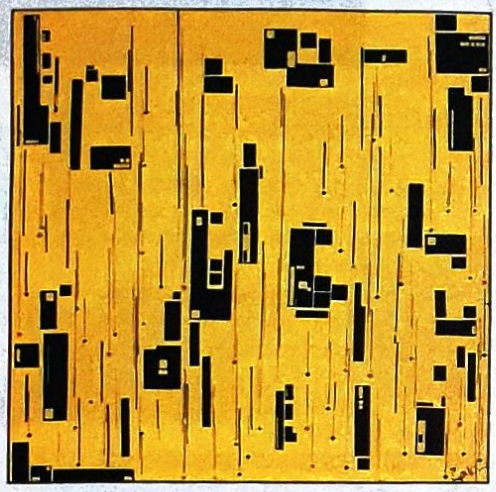
-초5·5학년 50대 주부 까지-

☞ 지금은 영어성경, 영어예배, 외국학생과 대화_ "설마 짧은 기간에 이렇게 효과가 있겠어?" 하고 무시해 버리곤 했는데_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에자신이 없었던 나는 그후 여러 차례에걸친 인터넷 수강해도 별다른효과를 보지 못했기에 미라클 홍보지를 보면서도 "설마 짧은 기간에 이렇게 효과가 있겠어?" 하고 무시해 버리곤했는데, 국민일보에 난 기사(2008.216)를 보고 공개설명회만이라도 들어 보고 수강 여부를 결정하고자 설명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설명회중 한국인들 대다수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잘못된 교육방식 때문이라는 설명에 공감을 하였고 기브서브는 영화이 강해게 느껴지등록하여 4개월 학습을 마치게 되었다. 아직은단어 실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영어성경을 보고있고, 영어예배에 참석하며, 미숙하지만 외국인 학생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었다. 중·고교 6년 동안을 배우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문법 및 독해를 30년이 지나 50살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4개월간의 훈련을 통해 하게되었고 또한 영어 회화의 재미를 느끼게 된 것이다. 학창시절에 미라클학습을 했더라면 하는 점은 아쉬움에 초등 고학년 및 중고생 사회 초년생들에게 미라클을 강력히 추천하는 바이다. 끝으로 계신 영어자지을 열게 성원을 다해 전수해 주신 최 목사님과 보조진행자로 헌신하신 여로사람을 평가주신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송해성 50대 / 순복음춘천교회 -

예수 안에서 본 예술



정혜옥 / 성령의 단비 / 색테이프 작업 / 120×122cm / 1998년

〈작품설명〉

작가는 테이프을 자르고 붙이는 매우 단순한 기법을 사용했지만 작품의 형태와 구조가 지닌 의미는 간단치 않습니다. 선과 면의 크고 작음, 굵고 가늚, 높고 낮음이 어울려서 이루는 화면은 회화가 아닌 음악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단순한 공간성과 다양한 시간성의 조우. 어찌보면 전위적인 현대음악의 악보처럼 해독하기 어려운 이 작품은 '성령의 단비'라는 제목 속에서 그 의미가 살아납니다. 청음의 감각이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이 그림 앞에 서면 촉촉히 내리는 빗방울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칠고 메마른 땅에서 단비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그 소리는 너무나 분명하고 또렷합니다.

[편집위원 이 관 형]

비 내리는 날에는 로마서를 읽자

비 내리는 날에는
로마서를 읽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자

삶이 지치고 힘들 때에는
한걸음 쯤 뒤로 물러서서
우리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행간 가득히 넘치는
사랑과 은혜의 강물 속에
온전히 잠기어 보자

비 내리는 날에는
로마서를 읽자

고뇌의 주름살을 활짝 펴고
시들어버린 영혼의 화분 속에
성령의 단비를 촉촉히 뿌려주자.

■시. 이 정 화 약력
* 이화여대 법학과졸업
이세이연합신학대학원졸업
* 크리스천신문사 신인문예시 당선
* 1998년 『시문학』으로 등단
* 2007년 『시와창작』수필부문 신인상
* 한국크리스천문학가협회 회원
* 시문학회 회원
시집
『당신과 함께 김치를 담글 때』(1998년)
『가을이 저무는 창가에서』(2002년)

| 좌충우돌 건강이야기 19

습진이 아니라 곰팡이라고요?



고석연
(가정의학과)

날짜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고등학교 시절 여름수련회를 다녀온 후 사타구니에 병이 생겨 고생을 했다. 병이 생긴 부위가 사타구니라서 다른 사람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대다가 부모님께 보였더니 걱정하지 말라며 습진이라고 하셨다. 그러고는 특별히 치료도 해주지 않으셨다. 사타구니의 병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며 피부를 점점 검게 만들었다. 그리고 사춘기 시절 나의 열등감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의과대학에 입학하고서도 한참 후에나 이 병이 곰팡이로 인한 완선이라는 질병임을 알았다.

그 당시만 해도 병원 문턱이 높아서 웬만한 병은 참고 지내곤 했다. 요즘도 중고생들이 완선에 걸리는 일이 많은데 마음고생이 심한편이다. 다른 사람에겐 말도 못하고 이상한 병에 걸린 게 아닌가 걱정하다가 결국에는 어머니나 아버지와 함께 병원을 찾는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들은 습진이라고 설명을 하나보다. 습진이 사타구니에 생겼다고 치료해 달라고 하는 환자나 보호자들이 많다.

피부사상균(곰팡이의 일종)에 의한 표재성 피부감염을 백선이라고 하는데 완선도 이 백선의 일종이다. 몸에 생기면 체부백선, 머리에 생기면 두부백선이라고 한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것은 발에 생긴 것인데 바로 무좀(족부백선)이다. 완선은 사타구니에 생기는 백선이다. 병에 걸리면 사타구니의 피부가 경계가 분명하고 진한 색(갈색, 검붉은 색 등)으로 변하면서 하얗게 인설(피부에서 하얗게 떨어지는 살가죽의 부스러기)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동반된다. 환자들에게는 알아듣기 쉽게 사타구니에 생긴 무좀(?)이라고 한다.

주로 완선은 남자들에게 잘 생긴다. 구조적으로 사타구니에 땀이 많이 차기 때문이다. 어렸을 적 수련회에 가서 완선에 걸렸던 것도 여름에 땀은 많이 나는데 속옷도 못 갈아입고 잘 씻지도 못해서 생긴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비만인구가 늘어나면서 여자들도 완선에 걸리는 일이 많아졌다. 물론 치료는 항진균제를 사용한다. 바르는 약도 좋고 먹는 약도 잘 듣는다. 그러나 습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질병이므로 습한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감염 될 수 있다. 약을 사용하면서도 속옷은 매일 갈아입어야 되고, 땀이 차지 않도록 꼭 끼는 바지는 삼가 하는 것이 좋다.

백선을 이야기 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식초다. 치료 효과가 좋은 약이 별로 없던 과거에 주로 사용한 민간요법인데 지금은 좋은 약이 많이 있으므로 식초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특히 식초는 피부염이나 화학적 화상을 자주 일으키는데 병원에서는 식초로 인한 화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약 1달 반 정도를 식초로 인한 화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했던 환자가 기억에서 잊혀지질 않는다.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할 때 쓰던 무좀약을 지금은 더 이상 일차약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더 좋은 약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환자들은 여전히 무좀은 잘 낫지 않는 병으로 알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완선을 피부염으로 알고 있어서 치료하지 않는 것도 또한 안타깝다. 의료 보험이 시작된 이후 병원 접근성이 좋아져서 이제는 누구나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있다. 병에 대해 걱정하고 민간요법에 의지하는 것보다 전문가인 의사를 만나서 병을 진료하고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다.

고민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주는 신앙상담 6

신천지 교리 무엇이 문제인가?



① 신천지인들은, 성령을 '천사들'이라고 한다. 우리는 성령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하지만 그들은 성령이 '거룩한 천사'들이라고 한다.

② 신천지인들은, 재림 시에 성도들이 육체로 부활할 것을 믿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것도 아닐 것이다(고전 15:12-19).



③ 신천지인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지식 믿음 행함'이 있어야 구원에 이른다고 말한다.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본 '이긴자, 보혜사 이만희' 씨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열어 보여줘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시각으로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예수님('이긴자, 이만희' 씨의 육체에 임한 예수님의 영)을 믿을 뿐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

④ 신천지 측에서는 사람이 이 땅에서 육체로 영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만희씨는 물론 144,000명으로 선택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이다. 이미 죽은 '순교자의 영, 144,000'이 '살아있는 육체 144,000'에 덧입히면 영과 육이 영생한다는 것이다.

⑤ 신천지는 144,000을 실수(實數)로 본다.
신천지인들은 문자 그대로 144,000명이 모아지면 어린양 혼인잔치가 열리고 이때 '순교자의 영'이 '살아있는 육체'에 임하여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흰옷을 입은 무리'가 천년이 지난 후에 둘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⑥ 신천지인들은 종말에 대한 그릇된 사상을 가지고 있다.
신천지에서는 첫째 장막의 시대와 둘째 장막의 시대를 나누면서 1966년부터 시작된 첫 장막 시대가 1980년 9월 14일에 끝나고 3년 반이 지난 1984년 3월 14일부터 둘째 장막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지금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한 그 종말이 성취된 시대라는 것이다.

⑦ 신천지인들은 요한계시록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봉해진 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이, 이만희씨가 계시록의 실상을 보기 전까지는 닫힌 책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봉함된 책을 이만희씨가 열어보였다는 것이다.

⑧ 신천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다.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는 본문(마 24:30)을 구름을 '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이 '영'(말씀)으로 임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만희라는 육체에 예수님의 영이 임하는 방식으로 재림이 성취되었다고 한다.

⑨ 신천지에서는 아담 이전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을 비유적으로 해석해서 흙(아다마)은 사람인데 이미 존재해있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아담 한 사람을 선택해서 생기(영, 말씀)를 불어넣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그 시대의 목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⑩ 신천지는 그릇된 시대별 목자 이론을 가지고 있다.
아담 시대에는 아담에게 노아 시대에는 노아에게 아브라함, 모세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그 시대의 목자로 세웠다고 한다. 그리고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오늘날 이만희가 약속의 목자로 세워졌다는 것이다.

⑪ 신천지는 성경 해석에 대한 기본을 모른다.
성경을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문제가 없을 때 그 해석이 옳다 할 수 있다. 성경을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Eisegesis이고 또 하나는 Exegesis이다. '아이스제시스'란 내가 규정한 개념을 성경 구절에 대입시키는 성경 해석상의 오류를 말한다. 성경으로부터(from the Bible)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상황을 성경에(into the Bible) 억지로 갖다 붙이는 오류이다. 반면에 '엑세제시스'는 성경으로부터 성경을 해석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만희씨는 자기 주변에서 일어난 소소한 분열과 봉합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 시켜서 계시록의 실상이라고 정당화하였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신성모독이다.

⑫ 신천지의 비유풀이에 문제가 있다.
신천지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비유가 '씨를 뿌리면 나물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다'라는 내용이다. 이것을 신천지에서는 씨는 말씀이요, 나무는 사람이며, 가지는 제자이고, 잎은 전도자이며, 열매는 성도 또는 말씀이며, 새는 영이라고 해석한다. 이 비유를 이렇게 억지로 푸는 이유는 바로 생명나무 이만희를 정당화하기 위함이다. 즉 선악과를 대신할 만한 생명나무 이만희와 그가 주는 열매 즉 말씀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런 무리한 작업을 하는 것이다. [편집부]

예 향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준비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죽었다. 그가 저승사자에게 끌려갔을 때 불평하기를 "왜 나에게 죽는다는 이야기를 미리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저승사자는 노인에게 "자네, 무슨 그런 서운한 말을 하는가. 나는 자주 자네에게 소식을 전했네. 자네 눈이 점차 어두워지지 않았나. 이가 하나 둘 빠지지 않았나. 게다가 몸이 하루하루 노쇠해진 것이 그 소식이었네. 자네에게 얼마나 소식을 전해야 알아들었겠는가?" 라고 했다. 그때 저승에 온 젊은 청년도 억울하다는 듯이 불평하였다. "저는 눈도 밝습니다. 이도 튼튼합니다. 어째서 저를 데리고 오셨습니까?" 그러자 저승사자는 "자네에게도 소식을 전해주었네. 네 옆집 아저씨가 서른다섯살 살인대열마 전에 죽었지? 네 집 건너편에 청년도 교통사고로 죽었고, 더군다나 며칠 전에는 어린 아이가 죽는 것도 봤지? 그것이 바로 자네에게 전한 내 소식이네" 라고 대답하였다 한다. 그렇다. 우리는 결국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편집위원 최 상 도]

성 시 만 평

이 관형 · jysince93@hanmail.net



뜨거운 여름!
성령의 불길로 이겨내자!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장 : 최영조
편집 위원 : 고재만 권기찬 김미경 김춘배 이관형 이영규 유병준 정제호 조영춘 조나단 최상도

〈원고 투고 및 광고 문의〉
200-08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Y신협3층
E-mail : hc1260@hanmail.net
대표전화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교회현수막만 합니다
예수님 향기
꼭 필요하시면 그냥 해 가세요 (개&미교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춘천시 효자1동 660-8 (동성교회 앞)
천일디자인 T. 255-5722 F. 256-5722
전 천 일 장로 아파치학교설립이사(스텝) (서울종부1기수료)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권 승 갑 장로(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 010-4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 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사랑을 싣고 달리는 택시"
춘천운전기사선교회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장애인들의 손발이 되어주고 작은 기쁨을 선사하는 택시기사들이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설립





춘천운전기사선교회(회장 박무영 권사)는 택시기사들의 선교와 지역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90년 2월 7일 빨.노.파 선교분과위원회로 모여 창립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17일 한국운전기사선교회에 가입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1992년부터는 시의 재가를 받아 현재의 5조 기사선교회가 본격적으로 지역사회의 봉사활동과 유관기관과의 사업에 동참해오고 있다.

초창기 김치경 초대회장(중앙성결교회)과 10명의 회원들로 시작된 춘천운전기사선교회는 현재 36명의 회원들이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다.

박무영 회장은 "손님을 정성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선교회가 결성되었다"며 "빠듯한 살림에 고된 일을 하면서 누군가를 돕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돕고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 봉사에 나서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택시 안에 설치된 사랑의 손길함에 많은 후원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하였다.

■ 어려운 이웃의 수호천사





매월 2회의 정기예배를 드리고 헌금과 회원들의 사랑의 손길로 모은 기금은 춘천시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 심장병어린이, 무의탁노인세대, 장애인세대, 장애인학교, 장학금, 중증장애인들의 가정에 전달하고 이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키다리 아저씨'로 적극 활동하고 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사랑의 집 어르신들 목욕지원 서비스와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등 14가정을 순회 방문하여 생활비 지원 및 집 청소, 환자 돌보기 등과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면담과 기도로 돕고 있다. 그리고 전기, 보수 등 집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강원대학교 집수리 봉사대'와 협력하여 사랑을 나누려고 힘을 다하고 있다.





또 월드비전 협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캠프 및 봄철 나들이 불우이웃돕기 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도장애인복지관과도 연합하여 연 2회 중증장애인들과 여행 및 나들이 서비스 차량지원과 자원봉사로 섬기고 있다. 이 외에도 춘천시의 각 기관 및 단체, 그리고 기독교 기관 행사시 교통 및 주차요원 자원봉사도 하고 있다.

운전문화를 개선시키는 데도 앞장서서 손님들에게 친절로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춘천운전기사선교회. 앞으로 복지재단 어른들과 시의 거주하는 어려운 어른들과 함께 나들이 서비스를 통해 어른들에게 말벗이 되어주고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을 계획중이라고 한다.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춘천운전기사선교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본다. 〈춘천운전기사선교회 연락처. 019-9251-3291, 011-363-2459〉

[글정리. 편집부]

【춘천성시화리그 교회대항 축구대회 6월 경기전적】 2009. 6. 23 현재

교회	경춘	금산	동부	삼천동	석사	소양	시온	온누리	제일	중앙	지내리	퇴계	효자	경기 전	경기 승	경기 무	경기 패	득점	실점	득실	점수	순위
경춘				1:0		1:0	4:0	4:1	2:4	2:1	3:4	6:3	2:3	9	6	0	3	26	16	5	18	4
금산			0:3	1:2		3:1	2:4	3:0	3:9	1:2	0:1	0:2		9	2	0	7	13	24	-11	6	11
동부		3:0		6:2	0:5	5:2	6:1	3:0	1:0	5:1	3:2		3:1	10	9	0	1	35	14	21	27	1
삼천동	0:1	2:1	2:6		1:6	1:10	0:3	1:2	1:4	1:5	0:7		2:2	11	1	1	9	11	47	-36	4	12
석사			6:0	6:1		4:3	1:1	5:2	6:0	2:2			3:1	9	7	2	0	36	11	25	23	3
소양	0:1	1:3	2:5	10:1	3:4		2:2		0:1		0:4		3:5	9	2	1	6	27	26	1	7	10
시온	0:4	4:2	1:6	3:0	1:1	2:2		3:0	1:3				2:1	9	4	2	3	17	19	-2	14	6
온누리	1:4	0:3	0:3	2:1	2:5		0:3						0:3	0:1	8	1	0	7	5	23	-18	3	13
제일	4:2	9:3	0:1	4:1	0:6	1:0	3:1			2:0	6:3	4:1		10	8	0	2	33	18	15	24	2
중앙	1:2	2:1	1:5	6:1	2:2				0:2			4:1	2:2	2:1	9	4	2	3	19	17	2	14	5
지내리	4:3	1:0	2:3	7:0		4:0			3:6	1:4			3:4	3:2	9	4	0	5	28	28	0	12	7
퇴계	3:6	2:0			1:3		1:2	3:0	1:4	2:2	4:3		1:1		9	3	2	4	18	21	-3	11	8
효자	3:2	2:2	1:3		1:4	5:3		1:0		1:2	2:3	1:1			9	3	2	4	17	20	-3	10	9

7월 경기일정

구장	시간	7월 6일	7월 13일	7월 20일	7월 27일
A	20-21	금산 : 효자	소양 : 중앙	금산 : 석사	퇴계 : 동부
	21-22	동부 : 금손		제일 : 효자	금손 : 금산
B	20-21	삼천동 : 퇴계	온누리 : 제일	지내리 : 온누리	시온 : 효자
	21-22	석사 : 지내리		중앙 : 시온	온누리 : 소양

▶ 춘천성시화리그 교회 대항 축구대회
○ 일 정 : 2009. 3월 ~ 7월(5개월간), 매주 월요일 20:00-23:00
○ 장 소 : 공지천 축구장 / ○ 참가팀 : 13개팀 / ○ 진행방법 : 풀리그 (22주 78경기)

23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르신을 섬기고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벗삼아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www.rainbowhill.co.kr
춘천시지정노인요양원
무지개동산
노인장기요양 인정 1, 2등급자이면서 일반, 수급자(의료수급자) 가능
"요양, 보호 필요 하신 분 모두 오세요."
어르신들 황혼에 무지개동산이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 주소 : 춘천시 동면 월곡리 159번지
☎(033) 241-7660
010-5367-6907
무지개동산

기독문화산책 — 영화이야기<25>

선교에 관한 3제(題)

예수님이 남긴 명령이자 복음의 지상과제인 선교에 관한 영화 세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영화들은 모두 남미 선교가 공통인데 모두 수작(秀作)들이며 선교에 관한 한 꼭 추천해마지 않는 작품들이다.

■ 미션 (The Mission, 1986)



이 널리 알려진 영화는 거장 롤랑 조페 감독이 헐리우드 명배우 로버트 드 니로와 제레미 아이언스를 기용하며 깊은 인상을 남기는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으로 1986년 만든 작품이다. 1750년 경, 파라과이와 브라질의 국경 부근에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원주민 과라니족을 상대로 선교 활동을 벌이는 두 선교사의 대립되는 모습을 통해서 종교와 사랑, 정의가 무엇인가를 심오하게 그렸다. 1986년 제39회 칸느영화제 그랑프리 수상. 필자가 지금 남미에서 선교활동 중인 후배와 영화관에서 봤는데 지금까지 아직도 마음을 울리는 강한 감동의 여운으로 남아있다. 〈러닝타임 125분〉

■ 엔드 오브 스피어 (End of Spear, 2006)



1950년대, 에콰도르 내 아마존 정글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살해당한 미국 선교사들의 실화를 스크린으로 옮겼다. 짐 엘리오트와 네이트 세인트 등의 젊은 선교사들 다섯명이 원주민인 와오라니 족의 밍카야니에 의해 모두 살해당한다. 이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선교사들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밍카야니 자신과 그의 가족들의 삶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원주민들이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가의 과정을 무명의 배우들을 출연시키며 짐 핸논(1950년대 선교사들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비욘드 게이츠 오브 서플랜디(Beyond the Gates of Splendor)〉를 만들었는데 이번이 첫 번째 극영화 연출작이다.)이 섬세한 연출로 보여주는데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작품이다. 〈상영시간 108분〉

■ 소명(Calling, 2009)



유일한 한국영화이자 다큐멘터리인데 더욱이 현재 CGV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작품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강명관 선교사는 90년대 초 외국어고등학교 국어교사였으나, 문자가 없어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을 수 없다는 아마존 바나와 부족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을 위한 선교사의 길을 택하게 됐다. 영화는 강선교사 부부의 단조롭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일상을 담아내고 있다.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단 한번도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바나와 부족의 생활이 종교를 초월하여 관객에게 충격과 신선함으로 다가온다. 강 선교사는 현재, 바나와 부족의 문자를 만들어 교육시키고, 성경보급을 위한 번역작업을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평소 5~5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 가운데 각종 독충과 독사 등에 속수무책으로 살아가는 바나와 부족의 유일한 의사이자 좀 더 나은 생활을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신현원 감독作 상영시간 72분〉

[편집위원 김 춘 배]

※ 매월 둘째주 목요일 저녁 7:30 늘사랑교회에서 성시신문에서 소개한 영화를 상영합니다.

현 시국을 바로보는 눈!

[사진과 함께 하는 중보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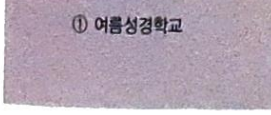
교회학교 여름신앙훈련 | 경춘고속도로 개통

■ 여름신앙 훈련 계절이 왔다. 교회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들어 과연 많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교회 교육에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투자 가치를 떠나서 반드시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마음 문이 열리는 시기이므로 이때 말씀을 넣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 **한국 교회가 시행하는 여름성경학교와 각종 수련회가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 서울~춘천을 잇는 경춘 고속도로가 7월 15일 개통이 예정되면서 서울 강동구, 남양주 와부읍, 화도읍 지역은 물론 춘천시 일대가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경춘 고속도로는 서울 강동구 하일동과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을 잇는 총연장 61.4㎞의 고속도로로 춘천에서 서울까지 단 40분이면 접근 가능하다.

: **현안 문제인 요금인하가 조속히 해결되고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도록 기도하자.**



① 여름성경학교



② 여름성경학교



③ 춘천롤게이트



④ 춘천-서울

〈후원자를 찾습니다〉

농 협 172242-51-085114
와이신협 04073-12-009998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성시화를 위한 3천후원자 모집일
1구좌 개인 2천원 단체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6월 후원자 명단]

갈릴리교회		강북성결교회	
거성교회		광영교회	
나눔교회		늘사랑교회	
동신교회		사암교회	
새춘천교회		세인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예당교회		예수촌교회	
온누리교회		주영광교회	
주항교회		춘천광영교회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와이신협		춘천일신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교역자연합회		한빛교회	
국민일보 춘천지사		기독우용선교회	
영광한의원	제시뉴욕	천일현수막	
춘천홀리클럽		행복재미장기요양기관	
강선희	강옥자	강진록	강태랑
고순덕	고순자	김관수	김기태
김태숙	김리현	김명숙	김미경
김미경2	김미경3	김민섭	김복심
김봉재	김성국	김성희	김영관
김영명	김영숙	김영순	김영일
김요섭	김은주	김재홍	김정애
김종은	김종익	김종잔	김주환
김진상	김현미	김현배	김현철
김희경	남상구	류재웅	마호숙
안병순	박난영	박동환	박래희
박인관	박정애	박제자	박종근
박필상	박형숙	배진철	변춘자
석지찬	송난의	신성균	심경하
안미애	안현주	양금환	오순자
오의석	오홍수	원희정	유갑순
유근창	유병준	유성현	유인혁
유재형	윤성자	윤애자	윤태호
윤홍묵	이계문	이규현	이내리
이동인	이영순	이무식	이병일
이상돈	이상만	이수길	이수항
이순자	이영진	이용규	이원근
이원기	이원영	이윤숙	이정이
이진주	이태경	이학규	임재철
임창수	장기남	장기영	장덕례
장선정	장소영	장소희	장요한
장주현	장창순	전영묵	정규시
정미경	정은하	정재군	정재현
정주연	정찬복	조건이	조영호
조소현	조은제	조정일	조정자
지경화	차경자	최계화	최병숙
최상호	최영순	최을용	최예석
최종덕	최춘영	최혜영	탁광희
한성아	한순수	한희현	황종현
허미정	허순영	허언영	허인영
홍순복	홍순신	홍택기	황병진
황은주	황정섭		

Happy House

Happy House는 우두동에 새로 단장한 요양원이며 오체로는 무지개동산이 있습니다.
춘천 시내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앞뜰에 넓은 잔디밭을 이용한 좋은 분위기의 휴식처가 또 다른 요양원에 진가를 발휘합니다. 지금 아늑한 요양 시설에서 어르신들을 기다립니다.

대상 - 노인장기요양인정 1,2등급자 이면서 일반수급자 (의료수급자)

혜택 - 전문인력 요양서비스 - 물리치료, 건강체크 프로그램운영 - 편리한 교통 - 최신실내공간, 넓은 잔디밭



춘천시 지정 노인 요양원
행복의 집
(주)242-3005, (이)241-2007, FAX.253-6007
011-448-7660
www.rainbowhill.co.kr ▷춘천시 우두동 150-6



한 사람과 '?개' 신앙

지 용 찬 목사 (춘천은혜교회)
춘천교역자연합회 회장

마을에 호랑이가 내려오면 큰 개들은 끙끙거리고 사지를 웅크리고 무서워한다. 마을에 호랑이가 내려왔는데도 무서워하지 않고 동구 밖까지 가서 왈왈 짖어대는 개가 있다. 어떤 개일까?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짖는다. 하룻강아지! 소위 '?개'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위인들은 '?개' 신앙인이다.

나는 언제부턴가 해마다 만남을 통해 그 해에 가장 감동을 받은 한 사람을 떠올리며 기억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 중에 한분이 세인학교 생활 관장 김용문 장로님이다. 장로님은 서울 유명한 고등학교에서 모시기를 원했으나 거절하고(초청 이유-지방고등학교에서 서울대 많이 합격시킨다는 이유)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학생들 20-30명 정도의 대안학교에서 주중에 그들과 함께 지내고 토요일에야 집에 가는 주말부부 생활을 하셨다.

한번은 학생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대드는 행동에 놀라서 보따리를 쌌으나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며 힘들었던 일을 말씀하셨다. 이상한 일은 화가 나서 집에 돌아갔으나 잘 걷던 걸음도 갑자기 걷기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학교로 다시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발걸음을 쉽게 뗄 수가 있었다고 한다.

부산 전라도 지역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인사 자제들… 그러나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세인학교에 온 그 아이들이 후에 점점 나아지고 학교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이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요, 또 선생님들의 수고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한 사람 김용문 장로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더 잊을 수 없다. 아주 시골동네의 한 생활 관장 장로의 헌신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금방은 안 나타날지라도 엔젠가는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성경의 진리(요12:24)를 보여주고 있다.

〈구곡단장〉이란 말이 있다. 다름 아닌 사냥꾼이 어린 새를 잡았다. 어미가 슬피 울며 사냥꾼을 따라오다 죽었다.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아홉 도막이 나있더라는 얘기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라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오늘 주님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구곡단장의 자세로 주님을 찾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은 아닐까?

오늘 이 시대 영향력 있는 한 사람,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을 향해 감동을 주는 한 사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국가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히 무릎 꿇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어디 있는가?

에레미야 5:1을 보라.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알려드려요 (교회소식 및 행사내용을 게재해드립니다. 매월 20일까지 연락바랍니다. ☎256-1260)

◆ 어린이전도협회
1) 2009 여름성경학교 강습회
일시: 6. 29(월) ~ 7. 3(금) 장소: 포항
등록금: 10만원 문의: 253-1443 [http://cafe.daum.net/ccfch/]

◆ 에스컴
1) 에스컴 스텝진 수련회
일시: 6. 29(월) ~ 7. 1(수) 장소: 집다리골 자연 휴양림
2) 에스컴 프레이즈
일시: 7. 18(토) 오후 6시 장소: 중앙성결교회
3) 에스컴 썸머 캠프 <주제: 가라 모세>
•1차 8. 6(목 ~ 8(토), 평화수양관(남양주) (1차 마감됨)
•2차 8. 10(월) ~ 12(수), 충신수양관(마석)
문의: 에스컴클럽 club.cyworld.com/yescomelove
박진용 간사 010-8901-7004, 033)244-5400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전국대학생 여름수련회 : 일시: 6. 29(월) ~ 7. 3(금)
2) 인천 및 춘천 성시화도시전도 (IA지구팀과 춘천전도)
일시: 7. 3금) ~ 6(월) 문의: 010-4220-1691
※함께 전도하기 원하는 교회는 연락바랍니다.
3) 일본 동아시아 키르키즈스탄 단기선교
일시: 7. 8(수) ~ 21(화) 문의: 252-0542, 254-5776

◆ 에누텐 도란
1) 춘천 회복을 위한 화요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6:30 장소: 춘천동부교회 소예배실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2) 춘천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2시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대상: 중보기도를 지원하는 그리스도인
문의: 033)252-1128 [http://town.cyworld.com/ccywam]

◆ IVF
1) 여름수련회
일시: 6. 29(월) ~ 7. 3(금) 장소: 경기도 대동교회 수양관
2) 기초신앙훈련 : 7. 6(월) ~ 11(토)
3) 아웃로훈련 : 7. 6(월) ~ 11(토)
4) GML(글로벌 미션 리더십 트레이닝 대상: 리더
일시: 7. 6(월) ~ 8. 3(월) 장소: 말레이시아 페낭
5) 필리핀 비전트립
일시: 7. 17(금) ~ 8. 1(토) 문의: 252-5200

◆ JDM
1) 선교사훈련 과정(MTI)
일시: 7. 6(월) ~ 24(금) 장소: 국제선교훈련원(☎243-6701)

2) 세계선교대회
일시: 8. 3(월) ~ 8(토) 장소: 한남대학교
문의: 033)243-6701, 010-2704-3375

◆ GBT성경변역선교회
1) 전국지부간사모임
일시: 7. 14(화) ~ 15(수) 장소: 서울근교
2) 비전기도회
일시: 7. 16(목), 30(목) 오후7시 장소: 춘천예담교회(GBT춘천지부)
문의: 252-3927, 010-9244-9094 이선희간사 chunchean@x2025.or.kr

◆ 인터콥 춘천지부
1) 2009 선교캠프
① 여성&시니어 선교캠프 : 7. 9 ~ 11 / 원주명성 수양관
② 어린이 선교캠프 : 7. 23 ~ 25 / 충주호리조트
③ 청소년 선교캠프 : 7. 23 ~ 25 / 호서대 아산캠퍼스
2) 하늘의 예배, 한국선교부흥의 엔진, 월드미션
일시: 7. 20(월) 오후7시 문의: 춘천지부 033)262-1040
장소: 춘천광염교회(에덴꿀 진흥APT상가 맞은편)

◆ 제이랙(춘천연합찬양단) 꿀보다 위십
일시: 6월 1일, 15일(월) 오후7시 장소: 이루어가는교회
문의: 010-9368-9856

◆ 새벽날개 워십선교단 토요워십댄스반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반9:30분~11:00, 오후반3시~4:30분
대상: 아동부(6세~15세), 성인부(직장인 · 주부 · 청년 · 사역자 등
장소: 경원대대권도장(우석 초교옆) 문의: 263-6022, 017-374-2440

◆ 목회자 특구회원 모집
일시: 월 ~토요일 매일 오전6시 장소: 공지천 족구장
회비: 무료 문의: 011-361-1955

◆ 위앙 현자(위 누둥) 무료 특 배달합니다!
※주 1회 정도, 아무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문의: 010-9755-1719 강북성결교회

◆ 크리스천 기타교실
• 초급반 / 중급반 (새찬송가 645곡 찬양/반주 완성)
일시: 7. 7일 개강 매주 화요일 오후 6:30~8:30 장소: 춘천 동성교회
운영: 3개월 코스 (St/Ar) 6만원, 선교: 일반시민 무료
문의: 뉴렌 드음악선교원 010-6654-8280

◆ 춘천기독선교무용단 단원모집
대상: 한국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교하기 원하는 분
위치: 후평동 인공폭포 앞 15탑갑비 4층
• 교회 방문 수업 가능 문의: 춘천기독선교무용단 (010-3180-5330)

◆ 미라클하모니(천양선교)단원 모집
대상: 만20세 이상 세례교인, 비전공자 가능, 찬양의 열정을 가진 분 환영
연습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7:30 ~ 9:30
연습장소: 은의동 14, 효신 선교회 (KBS신관 옆)
※미라클아카데미 천양세미나(8월말), 지휘 발성음악과정(9월초 개강)
문의: 019-763-8868, 다음카페/미라클하모니

◆ 제1회 청소년리더십영어캠프(행지일목사기념사업회)
일시: 8. 3(월) ~ 8(토) 5박 6일 장소: 경 북봉화군영 성수련원
대상: 중1-중2(목회자,선교사자녀 우대) 주관: 효신 선교회 www.hyoshin.or.kr
문의: 254-3305, 019-763-8868/sslah100@hanmail.net

◆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 방문요양, 목욕 : 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65세 이상 치매, 중풍, 장애 등으로 요양보호사 돕봄이 필요하신 분.
*문의 : 011-366-4972, 255-2191 (춘천제일감리교회 탁경희 장로)

◆ 장수생활요양센터(기관)
• 장기요양 인정 신청제출 등급판정받기 원하시는 분
문의: 019-9138-4452, 251-4452 남부제일교회 송창순 장로

◆ 춘천요양보호사연합회생활지원센터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요양등급판정 안내
문의: 011-9731-0259 (사회복지사 신미정)

◆ 재단법인 한빛
• 중고교생의 교복 재활용에 동참하세요(많이 보내주세요).
문의: 242-6091, 010-2245-6091 (Jesusway교회 황관중 목사)

◆ 월드비전 강원아동양육단 단원모집
대상: 초등 3학년 ~중 3학년 장소: 본 복지관 3층 대강당
연습일시: 매주 화, 목요일 오후 5:30 ~7:00
내용: 각종 행사 위문공연, 정기연주회, 음악캠프
개인성악레슨(전문발성코치 선생님 1:1 지도), 귀가 시 차량운행, 간식제공
문의: 월드비전 ☎251-7214 심효선 사회복지사

◆ English Worship 영어예배
일시: 매주 주일 오후2:30 장소: 순복음춘천교회 젯세마네성전
문의: 최은순 선교사 010-7123-8265

◆ 청사회 연합동 보기도회 (CCPN)
일시: 7월 3일(금) 오후 1시 장소: 유스아트홀(중앙상가 맞은편)
주제: 신앙훈련 주관: 춘천기독청년모임
문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256-1260





■ 성시화 사무국 예배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국예배가 6월 11일(목) 오전11시 성시본부에서 있었다. 이날 문충식 목사(화목교회)는 "교묘한 사단의 공격"(역대상 21:1)이란 제목으로 "다윗이 가장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을 때 사단이 공격했으며, 높아진 마음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다. 특히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질 때 더욱 겸손해야 한다."며 "거룩한 도시가 되려면 무엇보다 교회의 리더자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시화의 지름길이다."고 당부하였다. 이어 성시화와 홀리클럽창립13주년기념 성령대부흥회, 청소년비전캠프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였다.

■ 교역자 연합 친선체육대회



춘천교역자연합회(회장 지용찬목사)가 주최하고 기독교연합회 후원으로 교역자연합체육대회가 6월 1일(월) 공지천 인조잔디구장에서 열렸다. 이날 목회 활동과 연합회 내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지역 교회가 일치단결하여 춘천복음화에 힘을 실어주고자 개최된 체육대회에서는 족구경기와 교단별 대항 축구경기가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 가운데 성결교단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교역자연합회는 친목도모를 바탕으로 연합예배, 세미나, 기도회, 원로목사 보살피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

■ 성시신문 편집위원회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회(위원장:최영조목사)는 6월 2일(화) 오전 11시 성시본부에서 모임을 갖고 127호 평가회 및 128호(7월) 기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열방교회 설립예식



기독교대한감리회 열방교회(담임 김창회전도사) 설립예식이 6월 5일(금) 오전11시 약사동 155-19번지 2층 예배당에서 있었다. 동부연회 원종국감독은 "죽는 밀알처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김성호 목사(강촌교회)가 권면의 말씀을, 이광희 목사(남부제일교회)와 건강한 목회연구소 류자형 이사장이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길동휘 목사(춘일교회)가 축도를 하였다. 김창회 담임전도사는 충남 예산 출생으로 공주대학 토목과 · 서울산업대 토목공학과, 강원대 산업대학원 토목공학과 석사 졸업하고, 한림성심대학 토목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9년 감리교 신학대학교 목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6.25 나라사랑 구국기도회



춘천교역자연합회(회장 지용찬)와 춘천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 장효근) 주관으로 제59년 6.25전쟁 기념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6.25 나라사랑 구국기도회'가 6월 25일(목) 오후7시 동성교회에서 열렸다. 지용찬 목사의 사회 하에, 기도 이학규 홀리클럽회장, 특별찬양 사모합창단, 경찰대교수 조용관 목사(물댄동산교회)가 "통일과 한국 교회의 사명"을 주제로 "한반도 평화통일은 하나님께 주신 한국 교회의 사명이고, 준비된 통일을 위하여 북한을 알아야 한다"며 "탈북자 선교의 중요성과 통일의 빗장을 여는 세대인 젊은이들에게 나라사랑과 통일의 중요성을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병철 목사의 인도로 특별기도시간을 갖고, '교회연합과 춘천성시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엄기홍 목사(CCPN위원장)와 최승호 목사(흰돌선교회)가 기도한 후 장효근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홀리클럽 13주년 기념 행사





춘천홀리클럽(회장 이학규 장로)은 창립13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6월 8일 오후7시 순복음춘천교회에서 드린 후,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춘천 성시화를 위한 성령대부흥회'를 '오 주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란 주제로 안디옥감리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외에 특별행사로 13일 친선탁구대회를 펼쳐 치열한 경합 끝에 ▶단체전 우승은 석사교회, 준우승 순복음춘천교회, 공동3위 신성교회와 한빛교회가, ▶개인복식우승은 김종렬 · 안우영조, 준우승 양찬현 · 박일조, 공동3위에 김태형 · 권순홍조와 성대식 · 이정웅조가 각각 차지했다. 이외에 특별행사로 13일 친선탁구대회를 펼쳐 치열한 경합 끝에 ▶단체전 우승은 석사교회, 준우승 순복음춘천교회, 공동3위 신성교회와 한빛교회가, ▶개인복식우승은 김종렬 · 안우영조, 준우승 양찬현 · 박일조, 공동3위에 김태형 · 권순홍조와 성대식 · 이정웅조가 각각 차지했다.

북강원도 결핵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북강원도결핵어린이돕기 범도민운동본부는 6월 23일(화) 오전9시30분 고성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조남진 북강원도결핵어린이돕기범도민운동본부장, 김주환 전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장, 이희종 강원일보사장, 박만석 CBS춘천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만 명분의 결핵 약품'을 북강원도에 전달했다. 지난해 4월 26일 시작된 북강원도결핵어린이돕기운동은 10개월간의 대장정 끝에 성금목표액 3억원을 달성했다. 국내에서 민간단체가 순수 성금으로 의약품을 마련해 북에 전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열방을 내 가슴에 심어주소서!



MPS(선교세계관학교, 교장 민경원) 16기 수료식이 6월 6일(토) 오후3시부터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에서 진행됐다. 이날 25명의 수료생들에게 박종진 선교사(순회선교단)는 "선교의 동원"을 주제로 강의하였고, 김종호 목사(효자교회)가 성만찬식을, 김성호 목사(강촌교회)와 박인관 목사(광염교회)가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전했다.

■ <헨리 풀 이즈 히어> 기독영화 상영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6월 11일 오후7시30분 늘사랑교회에서 기독영화 <헨리 풀 이즈 히어>를 상영하였다.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은 '헨리 풀'은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히 삶을 정리하려 하지만 자신의 집 담벼락에 생긴 얼룩이 예수님의 형상이라며 동네 주민들이 찾아와 기도하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 이를 시종일관 믿지 않던 풀이 차츰 마음의 문을 여는 잔잔한 감동의 이야기이다.

■ 성시화를 위한 중보기도회



춘천중보기도네트워크(CCPN) 정기기도회가 6월 12일(금) 오전12시 유스아트홀에서 예수전도단 통일나눔터 주관으로 "한반도 통일과 북한선교"를 주제로 열렸다. 이병철 목사(춘천기독청년포럼)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도회에서는 통일나눔터회장 김수복 목사가 "한국 교회의 통일을 향한 비전"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이진배 장로는 "북한을 수차례 방문하면서 경험한 일들과 북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에 대해 간증하였다. 이어 '캠퍼스사역', '바른 기독문화와 선교', '춘천 성시화와 나라'를 위하여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였다.

■ 봄내호스피스 병원 건립 선포식



봄내호스피스 병원선포식이 6월 21일(주일) 오후4시 소양제일교회에서 있었다. 1999년 10월에 발족한 이후 445명의 환자들을 섬겨왔다. 춘천 근교에 1,200평 부지를 구입, 병원 건립으로 더 많은 환자들을 섬기게 되었다.

■ 춘천성시합창단 정기연주회



춘천홀리클럽(회장 이학규) 주관으로 춘천성시합창단(단장 정세화) 제3회 정기연주회가 6월 22일(월) 오후7시30분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민성숙 지휘로 시종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 '청산에 주님 모시고' '생명의 양식' '주님 감사합니다' 등 10여곡을 선보였으며, 강원대 첼로 앙상블이 찬조 출연해 합창단과 호흡을 맞췄다.

교회건축(신축, 증축) 및 리모델링, 구조물 보수, 보강 전문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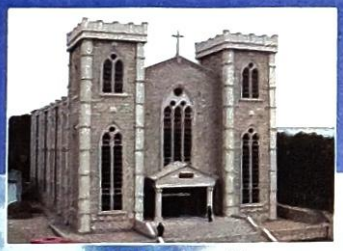


대표이사 강상용장로
(서울북노회 / 상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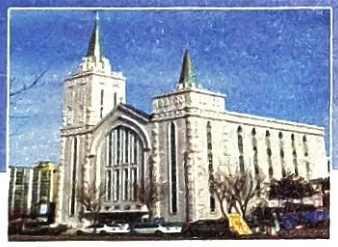


사업단장 이진배장로
(강원노회 / 성광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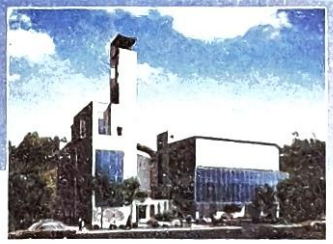
교회건축 및 리모델링에 관한 설계 및 시공에 대한 모든 것 이제 엘리트와 상담하십시오.



평양봉수교회



일산승리교회



오창대교회



마천중앙교회



(株)엘리트 개발
(株)엘리트 공영
(株)엘리트기발공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22-2 (덕원빌딩 2층) T. 02_529_1893~6 F. 02_529_1897
E-mail. elitecd@paran.com homepage. hppt://www.elite-cd.com
강원도 춘천시 약사동 160-8 청산빌딩 3층 T. 033_254_5070 F. 033_254_5170
E-mail. ejb5222@hanmail.net H.P. 011_9795_5570